

# 광주지법 “총장 선출은 이사회 권한” 전호중 총장 체제 안착할 듯

서재홍 교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으로 번진 조선대 총장 선출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계속됐던 학내 구성원 간 첨예한 대립 양상도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서재홍 교수가 전호중 총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호중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오는 10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전 총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본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호중을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대 선관위는 선

거운동원이 답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전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했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출 규정 위반이 없었는 데도 이 같이 결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9월 26일 회의에서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했으며 조선대 선관위는 전 총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해 논란이 일었다.  
최다 득표를 한 서 교수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전 총장은 이에 맞서 선관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중·고교 한반에 40명 ‘홀적’ ‘광주 과밀학급’ 400곳 넘어

광주지역 중·고교 가운데 학생 수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은 중학교 33개교에 151학급, 고등학교는 44개교에 250학급 등 77개교에 401학급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55곳 보다 254곳 줄 것이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2곳에 2학급이 있었으나 올해는 해소됐다.  
중·고교 학교수가 86곳과 66곳인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는 38%, 고등학교는 66%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가운데 과밀학급이 5학급이 넘는 곳은 14곳으로 이 가운데 사립이 10곳이다.  
고등학교는 27곳이 과밀학급으로 이 가운데 사립이 19곳에 달했다.  
특히 10학급이 넘는 사립학교도 4곳에 달했다.  
초중등 시행령에 정한 법정기준 35명을 적용하면 과밀학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과밀학급이 많은 것은 주변에 학교가 부족한 특성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선호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26.6명, 중학교 35.7명, 고등학교 36.4명이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2분 / 해질 17시 31분 / 달돋이 16시 58분 / 달지 06시 19분

수능 한파 없어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남해안 지방에서 비가 오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11/17C
목포	흐림	11/16C
여수	흐림	13/16C
나주	흐림	10/18C
완도	흐림	12/15C
구례	흐림	10/18C
강진	흐림	12/16C
해남	흐림	11/15C
장흥	흐림	11/15C
순천	흐림	12/18C
영광	흐림	11/17C
진도	흐림	12/16C
전주	구름맑음	11/18C
군산	구름맑음	11/17C
남원	구름맑음	9/17C
홍산도	흐림	13/15C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풍~동풍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풍~동풍	2.0~4.0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1/19	10/18	8/16	6/15	4/16	5/17



11일은 '찰떡궁합 가래떡 데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회원들이 9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1월11일을 '찰떡궁합 가래떡 데이'로 지정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친 후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누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임시 보호 중인 원생들 최소한 삶의 질 보장을”

인화대책위 중간보고회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인화대책위)가 9일 임시보호조치 중인 인화원 생활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화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석법인 인가취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천막농성' 중간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인화대책위는 “임시 보호조치 중인 인화원 생활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 배치, 생활재활교사 추가 배치, 육구 재조사를 통한 탈시설과 자립생활 여부 확인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과 활동보조 등을 늘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최소 자격 기준 마련, 시설비나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지원팀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와 시설운영위원회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건축허가 취소 절차 시작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남구는 9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담당 공무원, 사업자가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사업자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청문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업체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청문은 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조만간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7일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위반 건축물이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남구에 통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2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www.kjhr.com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침대

소파

서랍장

www.oknwood.com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도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말)
- 친환경 흙흙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필라 내장 미장재, 목도보드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집합유리방열, 필름합판, 문막, 물딩

**판매품목**

- 장능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작 · 죽육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샵롱 · 편백건강베개(편백씨앗+결명자씨앗)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백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중합목재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652-2935 · 2223 fax. 062)651-5141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목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수요(사용전력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